

공적개발원조, 광주형 ODA를

(1) 프롤로그

지역은 어떻게 세계와 연결돼 있나

지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진통이다. 이번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차분히 지켜본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남의 의견을 논리적 비판 없이 따르게 마련이다. 흔히들 휘둘린다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그렇다. 내가 사는 내 마을의 주인이 '나'라고 하지만 실상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물며 한 나라에 사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이유야 어찌되었건, 나와 관련 있는 중요 의사 결정에 나는 없고 나를 대변하듯 언론이 개입해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으로 나를 둘러싼 중요 결정이 주입되고 있다. 나를 주인 된 예우를 해 주는 게 아닌 들러리·주변인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안에 답이 있다

나 역시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에 '왜'라고 하는 의문보다는, 보여 지는 현상에 매몰되며 나오는 별개로 여기게 된다.

2020년 1월 코로나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귀국 했다. 고향에 돌아와 새롭게 안을 들여다보니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모습(지역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이 눈에 들어온다. 수년을 해외에 나와 있다 새롭게 안을 들여 보니 주변 현상들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기만 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당연 나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 현상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기만 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게 자명하다.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인 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삶은, 이해 관계의 연속이다. 개인 삶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모든 행위 속 이해관계의 정점에 지역정치와 중앙정치가 있다. 국가 대 국가 또는 서로 다른 민족 간에 얽혀 있는 이해 관계 안에서 전쟁과 분쟁, 풍요와 빈곤으로 인류 역사는 이어져 왔다. 인류가 지속하는 한 다양한 이해 관계의 연결고리는 또 다른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대선이 그렇다.

그간 10년에 가까운 국제개발협력 업무와 분쟁지역(동티모르, 아프간, 이라크, 르완다)에서 지낸 경험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제적 이슈를 하나씩 일깨우게 했다.

가장 섬뜩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분쟁을 원하지 않지만 분쟁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인 모두는 전쟁보다는 평화, 빈곤보다는 번영, 밝은 미래를 원하지만 누구도 결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그렇다. 이런 인류의 문제를 한 개인이 또는 단체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이해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지역사회 현안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방향을 틀어놓는다. 즉 공평함 보다는 힘이 누가 더 센가에 따라 이쪽과 저쪽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사슬처럼 얽혀 있다. 이 복잡함이 중앙으로 가게 되면 힘은 대결 구도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얽혀 있는 이해관계 역시 힘의 균형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약한 고리를 통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마련이다. 크고 작은 분쟁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곳은 번영과 평화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곳에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난민과 빈곤이 상존한다. 그리고 이 번영과 빈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공존한다. 그래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과거 문제는 미온적으로 쌓아두고서 새로운 해결 방안이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재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현재, 이곳이 세상의 중심

삶은, 내가 서 있는 현재 바로 이곳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중심이 흔들리면 어디에 있던 흔들리게 되고 희생되기 마련이며 좌절하기 쉽다. 그 현장은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 또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이며 내가 터전을 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다.

저기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이미지화된 영상 속 환상의 섬 또는 흔히 말하는 북유럽의 복지 국가 또는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유학 등의 경험 하나로 아름다움을 스치듯 본 그곳이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정겹고 힘겹고 지난하게 수 천 년을 살아왔고 터전을 일구어 온 이곳,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 삶의 중심이다. 내 것과 우리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면 어디



2019년 르완다 농민들과 함께.

에 있는 들 삶은 통째로 흔들린다.

꼭 이해 관계로 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은 내 삶과 함께하는 일들이다.

오늘날 국제적 분쟁은 전 지구적 이야기다. 특정 국가의 지역 문제가 더 이상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나와 결코 별개가 아니라 지구인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힘의 논리 속에서, 나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내 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바로 서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은 아득히 멀리 있는 게 아닌 바로 내가 서 있는 우리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필자는 이제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려 한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내 고향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주인으로 살든 나 또한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년들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동행하려 한다.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한 주제로 10회에 걸친 연재를 시작한다.

ODA는 공적개발원조의 영문 아니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허동운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ODA 전문가, 분쟁지역을 가다> 저자





1회용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 주세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검색 문의 : 062-514-2470